通信使 文學에 반영된 朝鮮時代의 釜山

- 『海行摠載』소재 使行錄을 中心으로 -

한 태 문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通信使 文學의 형성배경
Ⅲ. 通信使行에 있어서의 부산의 역할
Ⅳ. 通信使 文學에 들어앉은 부산의 모습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부산은 예로부터 바다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수많은 詩人墨客의 사랑을 받아왔다. 일찍이 금빛 거북을 탄 金龜仙人과 함께 흰사슴을 타고 금정산 자락에서 놀았다는 蘇葭仙人[70], 盃山 주변에 노닐다 마침내 신선이 되었다는 金謙孝[71], 그리고 俗塵을 떨쳐버릴 요량으로 海印寺를 향하다 그 절경에 매료되어 동백섬 巖盤에 자신의 호를 따 '海雲臺'를 아로새겼다는 崔致遠과 같은 신라인들의 풍류마당이 바로 부산이었다. 비록 그들이 부산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취는 謙孝臺·蘇葭亭·海雲臺라는 특정 장소와 관련지어 부산을 찾은 文人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꾸준히 회자[72]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동래 출신인 鄭敍가 간신의 모함으로 고향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조정과 임금을 염려하는 〈鄭瓜亭〉을 지었다. 이 작품은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고려가요가 '詞俚不載'라는 명목으로 배척당한 가운데서도 '忠臣戀主之詞'로 인정받아 궁중아악으

70) 『東萊府誌』, 「樓亭」, 〈蘇蝦亭〉. 在府北十五里金井山中 今無 蘇蝦常乘白鹿 與金龜仙人遊 俗稱蘇蝦亭烏鵲不栖.

71) 같은 책, 「古跡」, 〈謙孝臺〉. 在府南五里尺山上 仙人金謙孝所遊 故名焉.

72) '蘇葭亭'은 鄭樞(〈東萊懷古用韓昌黎集中桃源圖韻〉)·鄭誧(〈東萊雜詩〉)·申叔舟(〈東萊縣城門樓記〉)·李春元(〈蘇葭亭〉)·尹暄(〈蘇葭亭〉)·洪葳(〈蘇葭亭〉)·申晟(〈萊山感古〉)·蘇斗山(〈登蘇葭亭〉)등이, '謙孝臺'는 鄭樞(〈東萊懷古用韓昌黎集中桃源圖韻〉)·李春元(〈次萊州雜詠〉)·洪葳(〈萊山感古〉) 등의 작품이 있다. 그리고 '海雲臺'는 崔恒(〈次海雲臺韻〉)·權擥(〈海雲臺〉)을 비롯한 많은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이들을 모아 『해운대 천년의 서정』(1994)으로 엮어낸 바 있다.

로 불려질 정도로 고려가요의 대표작이 되었다. 그리고 鄭誧는 울산으로 유배가는 길에 잠시 들러 소하정·해운대·溫井·積翠軒 등 부산지역 명소를 내용으로 한 최초의 연작시 〈東萊雜詩〉 10수를 남겼고, 그의 아들 鄭樞 역시 辛旽을 탄핵하다 동래현령으로 좌천된 뒤 해운대·겸효대·소하정·정과정 등을 소재로 〈東萊懷古用韓昌黎集中桃源圖韻〉을 남겼다.[73] 이밖에 高中址는 경상도 안찰사로 나가는 崔咸一을 전송하면서 〈送崔咸一直郎出按慶尙〉을 지었는데, 자신이 부산 출신임을 밝히고 금정산·동래성·溫井·소하정·北軒·해운대의 풍광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74]

조선시대에는 1605년 朴仁老가 統舟師로 부산의 좌수영에 내려와 144句의 종군가사 〈船上嘆〉을 지었다. 그리고 李安訥은 동래부사 재임시절의 시를 모아 『萊山錄』을 엮었는데, 특히 〈入東萊府〉·〈四月十五日〉 등을 통해 임진왜란으로 인한 부산지역의 傷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尹善道는 1618년 겨울에 부산의 機張郡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三聖臺에서 동생과 작별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은 〈贈別少弟〉를 남겼다. 이밖에 1868년에는 동래부사 鄭顯德이 봉래산·범어사·소하정·유선대·온정·배산·정원루·안락서원·황령봉·몰운대·해운대·영가대·자성대·정묘·甑山城·구봉산·초량포·수설문·다대진·절영도·태종대·오륙도의 풍광을 읊은 유람가사 〈蓬萊別曲〉을 짓기도 했다. 한편 구비문학으로는 부산 지역민에 의해 '동래야류'·'수영야류'·'부산진야류' 등 민속극이 창작되어 전승, 연행되기도 했다.

이상에서 보듯 부산지역의 경치와 풍속, 그리고 민중의 삶을 내용으로 한 다양한 문학창작의 전통은 오랜 기간 동안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면 부산을 소재로

73) 각각 『東文選』 卷9, 「五言律詩」와 『圓齋稿』 卷上, 「詩」에 수록되어 있다.
74) 高中址, 〈送崔咸一直郎出按慶尙〉, 『東文選』 卷4, 「五言古詩」.

한 문학작품은 그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양적 팽창을 가져온다. 그것은 다름 아닌 對日 통신사에 참여한 우수한 文士들이 부산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부산을 소재로 한 그들의 견문과 감상을 자신들의 사행록 속에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東萊府誌」·「題詠雜著」조에 실린 부산을 소재로 한 詩 대부분이 東萊府使나 通信使 사행원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당시 통신사가 부산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신사 사행원들의 문학작품에 반영된 부산의 모습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통신사 사행원의 문학작품은 그들의 개인문집과 타인의 選集 및 각 지역의 향토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申維翰의 『海游錄』을 비롯한 대부분의 통신사 사행록이 수록된 『海行摠載』[75]를 중심으로 살피고 나머지 문헌들은 보조자료로 활용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 通信使 文學의 형성배경

1. 문화사절로서의 통신사

使行은 '使臣行次'의 준말로 임금을 대신하여 남의 나라에 가는 신하의 전체 여정을 일컫는다. 조선조 우리 민족의 공식적인 해외체험은 주로 사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곧 '朝天使'(明)·'燕行使'(淸)로 대표되는 중국과, '통신사'로 대표되는 일본으로의 사행이 그것이다. 그 중 통신사는 조선왕조의 對日 기본정책인 交隣을 실현하기 위해, 1428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의 왕이 일본의 실질적인 최고통치자

75) 『國 海行』 (민족문화추진회, 1974)이다.

幕府將軍에게 보낸 信義의 외교사절[76]이다.

이처럼 통신사행은 표면적으로는 교린 외교사절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문화교류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우선 구성원의 면모가 단순히 정치적인 외교사절만의 모습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를 成宗의 통신사 사행원 선발에서 엿볼 수 있다.

성종은 軍官을 간택함에 있어 "한갓 武才만으로 뽑지 말고 모름지기 詞章을 잘하는 자를 택할"[77]것을 下命한다. 그리고 몸소 〈觀射〉라는 글제로 律詩를 지어 바치게 하여 뽑힌 趙之瑞에게, 재차 〈奉使日本〉이란 글제로 長篇을 짓게 한 뒤 그를 간택한다. 나아가 '일본인이 시를 요구할 때 수응하지 못하면 수치스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 詩文창작에 문제가 있는 書狀官 表沿沫을 교체해야 한다'는 신하의 諫言도 받아들여 蔡壽로 바꾸었다. 이밖에 1590년 사행의 正使 黃允吉은 이전 사행에 魚無迹·曺伸 등 문장에 탁월한 사람을 대동한 예를 들어 문장가인 車天輅를 대동할 수 있도록 청해 宣祖의 윤허를 받아내기도 했다.[78] 이처럼 조선전기 통신사조차 구성원 선발시 일본인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詩文창작 능력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7세기 중반이후 朝日간 평화가 정착되고 외교현안의 절실성이 사라지면서 조선 조정에서는 통신사의 문화사절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곧 통신사행은 詩文唱酬를 임무로 하였던 製述官

76) 孫承喆,「조선시대 통신사 개념의 재검토-탐적사 사명대사 대일사행의 외교사적 의미」,『2003 조선통신사 한일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2003), 58-59쪽.

77)『成宗實錄』卷100, 10年 1月 19日 丙子. 上曰 今日之選 不可徒取武才 須擇善爲詞章者 以啓.

78)『宣祖實錄』 卷23, 22年 12月 3日 丙子. 通信使黃允吉 啓曰 (中略) 先朝時 日本奉命之人 率一時能文之士 如魚無迹曹紳 亦嘗往來云 故車天輅欲爲率去敢稟 答曰 依啓 爾爲國事 今差海外之行 予嘗軫念矣 好爲往還可也 如有一行可 啓取稟事 勿憚而爲之 如有親啓事則 亦請面對可也.

을 비롯한 3인의 書記 외에 子弟軍官이나 裨將 등의 자격으로 문장에 뛰어난 인원들이 대거 편제되었다. 이는 다음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 ㈎ 製述官과 書記를 데리고 간 것은 글을 바라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이다.[79]
>
> ㈏ 조정에서 文臣 가운데 3품 이하를 골라 뽑아서 三使를 갖추어 보냈다. 그들 수행원에 뽑힌 이도 모두들 대단한 문장과 함께 아는 것도 많았다.[80]

글㈎는 직접 사행에 참여한 正使 趙曮의 기록이고, 글㈏는 사행체험이 전혀 없는 朴趾源의 기록이다. 하지만 모두 통신사를 '일본인들과의 문화교류를 염두에 두고 당대 최고의 문장을 지닌 이들로 구성된 문화사절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2. 사행의 긍지와 文才의 과시

일본으로 가기 전 통신사의 일본관도 사행원들의 긍지를 북돋우고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 유학자들은 일본을 '敎化를 통해 服屬시킬 수 있는 野蠻의 나라'로 인식하였다. 곧 통신사행은 "詩 삼백 편을 외우되 정사를 맡겨 주어도 다스리지 못하고, 사방의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왕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비록 많이 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81]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 결과 1655년 사행의 從事官 南龍翼은 藥名体·玉連環体·疊字体·數名体 등 시 제목에 作詩방법

79) 趙曮, 『海槎日記』 1, 癸未年 8月 3日(이하 8/3). 製述官書記 欲其文字之酬應也
80) 朴趾源, 「虞裳伝」. 極選文臣三品以下 備三价以送之 其幕佐賓客 皆宏辭博識.
81) 『論語』 卷13, 「子路」, 誦詩三百 授之與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傳對 雖多 亦奚以爲.

까지 붙이는,[82] 가히 실험적이라 할 만큼 다양한 詩體를 활용하여 문학적 재능을 과시하게 된다. 또한 통신사행은 당시 능력은 뛰어나되 신분과 같은 제도적 장치 때문에 조선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통신사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製述官과 書記는 대부분 양반이 아닌 中人과 庶孼출신이었고, 漢學譯官이나 子弟軍官으로 참여한 閭巷의 문인 등도 대부분 중인 이하의 계층이었다. 이들에게 있어 통신사행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였고, 답답한 가슴을 틀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게다가 사행 체험의 특이성 또한 통신사행문학 형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일본으로의 사행은 修學의 방편이었던 중국사행과는 달리 生死를 예측할 수 없는 海路의 여행이었다. 그 횟수를 보더라도 일본사행은 중국사행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따라서 일본사행이 지니는 체험의 가치는 실로 소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행원들도 자신의 체험을 온전히 기록하려는 욕구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행록에 반영된 각종 사행문학은 이러한 의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Ⅲ. 通信使行에 있어서의 부산의 역할

1. 對日 外交의 중심지

고려말부터 빈번하게 반복된 왜구의 출몰과 그로 인한 국토와 민중의 피해로 부산은 중앙정부로부터 국방의 關門으로 주목을 받기

82) 韓泰文,「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 硏究」(釜山大 博士學位論文, 1995), 78-82쪽.

시작했다. 특히 조선조에는 조정이 부산지역을 일본과 대치하는 국방의 요새지로 인정하여 동래의 관할하에 釜山鎭을 설치하는가 하면, 동래부사가 兵馬節度使 직속의 僉節制使를 겸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단독의 獨鎭이 되기도 했다.[83]

또한 부산은 對日 외교·무역의 공식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15세기 초 조선에는 일본인들이 외교와 무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인 倭館이 부산포·제포·염포 등 3곳에 있었다. 그후 증설·이전·폐쇄를 거듭하던 왜관은 임란 이후인 1609년, 己酉約條의 체결과 함께 부산왜관 한곳에서만 외교와 무역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늘날 부산을 형성하게 된 기반이 왜관의 설치에 있었다[84]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산은 그야말로 對日 외교·무역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통신사는 표면적으로 對日 외교사행이었기에 더욱이 부산이 그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부산의 성격은 오늘날 동래 금강공원 내에 세워져 있는 獨鎭大衙門의 왼쪽 기둥에 '변방을 제압하는 兵馬節制使의 관아'란 뜻의 '鎭邊兵馬節制營'이, 오른쪽에는 '일본과의 외교를 맡아 일본인을 접대하는 관아'란 뜻의 '交隣宴餉宣慰司'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국가차원의 餞別宴 개최지

1763년 사행의 正使 趙曮이 "바다의 위험엔 生死가 가장 염려된다"라고 밝혔듯이, 통신사행은 바다를 건너는 위험을 감수하고 왕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沿路의 각 郡縣에서는 그에 대한 영접을

83)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편,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늘함께, 1999), 27쪽.
84) 같은 책, 217쪽.

융숭히 하였다. 원래 전별연은 충주·안동·경주·부산 등 4곳에서 베풀어졌지만,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1655년 이후에는 부산에서만 전별연이 열린 것으로 나타난다.[85] 그것은 부산이 서울을 출발한 사행의 마지막 국내 종착지일 뿐 아니라, 앞으로 접대에 임해야 하는 왜인들이 보는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명분[86]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행록에는 전별연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반영된다.

> ㈎ 부산에 도착하였다. 좌수사 申命仁이 객사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3사신이 흑단령을 갖추어 입고 수사와 마주 앉고 일행의 원역 및 군관, 서기가 차례로 좌석을 정하여 花床代饌을 받았다. (중략) 보니 경주, 동래, 밀양 고을 기생이 풍악을 하고 번갈아 춤추어 풍악이 집을 울리고 軍樂이 하늘을 흔드는데 온 성안이 구경꾼이 천으로나 만으로 헤아리게 되었다. 밤중이 되어서야 마치고 성밖 민가에서 유숙하였다.[87]
>
> ㈏ 이날 사신 및 일행의 원역들이 객사에 일제히 모였는데 廳舍가 부족하므로 임시자리를 베풀고 기생과 풍악을 크게 차렸다. 사신과 水使는 주객의 자리에 갈라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차례대로 좌정하여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상을 받았는데 매우 융숭한 차림이었다. 차로써 술을 대신하여 9盞 7味의 禮를 행하는데, 누구나 다 머리에 菜花 한 가지씩을 꽂

85) 하우봉·홍성덕 역, ①『국역 증정교린지』 권5, 「우리나라에서 베푸는 연향」(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8), 199쪽, ②『국역 통문관지』 1, 권6, 「我境輝宴」(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8), 298쪽.

86) 김동철, 「통신사행과 부산의 역할」, 『통신사 한·일교류의 길을 가다』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2003), 12쪽.

87) 申維翰, 『海游錄』 上, 己亥年, 5/13. 早發抵釜山 左水使申公命仁 設宴于客舍 三使臣 具黑團領 與水使對座 一行員役及軍官書記 以序定坐 受花床大饌 使臣聞余至 卽令具公服入參 余亦就席受饗 見慶州東萊密陽三邑妓 張樂迭舞 絲管鳴堂 鼓吹喧天 滿城觀者以千萬計 夜分而罷 館于城外民舍.

> 았다. 배가 부르도록 상에 가득한 음식을 먹으며 임금이 주는 것을 영화롭게 여기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나그네의 괴로움을 아주 잊었다. 公宴이 끝난 뒤에 수사가 私宴을 이어서 베풀었다. 여러 풍악이 교대하여 연주되고 여러 춤이 일제히 벌어졌으며 청사초롱이 벽마다 걸려 있어 마치 대낮과 같고, 상 위에 벌여 놓은 화병은 완연히 봄동산과 같아 또한 하나의 기이한 구경거리였다. 밤중이 되어서야 마쳤다.[88]

이상에서 보듯 부산에서의 전별연은 慶尙左水使가 주관하되, 三使臣으로부터 말단의 格軍까지 초청대상이었으며, 동래·경주·밀양·울산의 官妓가 총동원된 호화로운 대연회였음을 알 수 있다.

3. 渡日前 통신사행의 최종점검지

부산은 도일을 앞 둔 통신사행의 최종집결지였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출발할 당시 사행원의 수는 1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기록된 『增正交隣志』·「京外路需」에 약 100명 정도의 경비만 드러나고, 항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船將·卜船將·熟手·格軍 등의 경비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엄의 『海槎日記』(1764. 6/24)에도 부산 귀환 후 노자를 선장·사공·격졸에게 분배하고 난 뒤 '반천 명 사람이 뜰 안에 우글거리다가 모두 돈을 메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

88) 趙曮, 『海槎日記』, 癸未年, 9/10. 是日三使及一行員役 齊會客舍 廳舍不足 廣設浮堵 大會妓樂 使臣與水使 分主客位 餘皆以次而坐 正席而受床 甚盛饌也 茶以代酒 行九盞七味之禮 人皆頭插一枝彩花 腹飽滿盤珍羞 榮君賜而感君恩 欣欣然頓忘客苦矣 公宴罷後 水使繼設私宴 衆樂迭奏 群舞齊起 掛壁紗籠 恍然若淸晝 列案甁花宛然如春園 亦一奇觀也 夜分而罷.

다. 따라서 통신사행은 서울에서 100명 남짓 규모의 인원으로 출발한 뒤 부산에 이르러 하급실무직인 騎船將・卜船將・格軍・小通事 등을 보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부산은 최종점검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 세 사신이 같이 船所로 가서 각기 탈 배에 올라가 그 제작한 모양을 살펴보니 자못 견고하게 되어 戰船에 비교하면 조금 컸다.[89]

㈏ 이날 禁徒倭 通事가 沙工倭 등 62명을 거느리고 왜관으로부터 나와서 도해선 4척의 길이, 넓이, 높이와 돛대를 일일이 재고 또 蛭釘을 저곳으로 내려서 미진한 곳을 보는데 이것을 이른바 點船이라 한다.[90]

㈐ 國書를 査對하였는데 예조의 書契 속에 관백의 이름자가 있어 忌諱에 저촉되고 말을 만드는 사이에도 節候가 틀리는 것이 있으므로 즉시 문질러버리고 사유를 갖추어 狀聞하였다.[91]

㈑ 수역당상관 3사람과 上判事 2사람이 함께 왜관에 가서 裁判倭・護行正副官・都船館守倭 등을 만나 인사를 하였다. 이어 배타는 날짜와 사신 일행의 사람수를 줄이기 곤란하다는 등의 일을 말하고, 날이 저물어 일을 마치고 동래객사로 돌아왔다.[92]

㈒ 삼사가 객사에 함께 모여서 예단, 복물을 고쳐 쌌다.[93]

---

89) 趙曦, 『海槎日記』, 癸未年, 8/22. 三使同往船所 各登騎船 觀其制樣 頗爲堅固 比戰船稍大.

90) 柳相弼, 『東槎錄』, 「日記」, 辛未年, 3/17. 是日禁徒倭通事 率沙工倭等六十二名自館出來 渡海船四隻長廣高及帆竹 一一尺量 又下蛭釘於彼所見未盡處 是所謂點船云.

91) 趙曦, 『海槎日記』, 癸未年, 9/1. 仍行國書査對 而禮曹書契中 有關白名字觸諱處措語間亦有節候差異者 故卽爲擦字 具由狀聞.

92) 洪禹載, 『東槎錄』, 壬戌年, 5/25. 三堂上與兩上判事 偕就倭館 見裁判倭護行正副官都船館守倭等 存問後 仍說乘船日期及人數難減等事 日暮罷還萊館.

글(가)는 조선측의 三使臣에 의해, 글(나)는 왜관 자체의 일본경찰에 해당하는 禁徒倭 등에 의해 通信使行船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글(다)는 渡日을 앞두고 별도로 책임자인 査對官이 정해지고 三使臣이 입회한 데서 이루어진[94] 朝廷에서 내려준 國書에 대한 査對작업 장면이다. 또한 글(라)는 조선의 사행실무자가 왜관의 실무자를 만나 乘船日·승선인원 등을 조정하는 장면이고, 글(마)는 三使臣이 객사에서 일본에 보낼 禮緞과 卜物을 싸고 있는 장면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부산은 통영과 경상좌수영 등에서 제조한 사행선박의 건조 및 감찰, 일본에 보낼 國書와 書契의 査對, 사행실무자간 사행일정·인원 등의 조정 및 公私 卜物의 검사와 封印 등 渡日을 앞두고 최종점검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4. 海神 祭享地 및 통신사행의 왕환지점

부산에서 집결하여 渡日 출발을 위한 최종점검을 마친 통신사 일행은 渡日에 앞서 釜山鎭支城 앞에 있는 永嘉臺에서 海神祭를 지냈다. 해신제는 渡海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통신사 사행원들이 龍을 해신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의를 베풂으로써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고자 했던 의미 있는 행사였다.[95] 당시 해신제는 약 5일전 祭日이 선정되면 바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사행원 전원이 모인 가운데 이틀 동안의 警戒와 하루 동안의 목욕 등 약 사흘간에 齋戒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祭儀는 子時初에 『國朝五禮儀』에 준하여 祭

93) 金指南, 『東槎日錄』, 「日錄」, 壬戌年, 6/2. 三使會同客舍 禮單卜物改結裹.
94) 柳相弼의 『東槎錄』 (3/6)에 의하면 당시 黃山察訪 李德升이 査對官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李德升은 사행 원역명단에는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95) 永嘉臺에서 베풀어진 海神祭에 대해서는 한태문, 「朝鮮後期 對日使行과 永嘉臺 海神祭」, 『통신사 한·일 교류의 길을 가다』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25-54쪽을 참조.

物을 陳設하고, 參祀者의 자리배치와 소임의 확인이 이루어진 뒤 丑時初에 「祭海瀆儀」에 준하는 笏記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때 당대 최고의 문사였던 製述官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海神祭文〉이 지어졌다.

> 겹겹이 쌓인 물결과 놀란 물결 속에 목숨이 털끝과 같으니, 神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무사히 건너겠습니까? 감히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명령을 받든 일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神은 우리를 보우하사 풍백에게 분부하여 속히 순풍을 주시어 사나운 풍파를 물리치고 고래를 엎드리게 하며 이무기와 악어가 도망쳐 피하여, 돛을 달고 닻을 들어 눈 한 번 깜짝할 동안에 천리를 가게 하여 주소서. 지체도 없고 걸림도 없이 안전하게 바로 扶桑에 도달하고, 날을 헤아려 배를 돌리게 하소서.[96]

사행원들은 고래·악어·이무기 등을 渡海를 가로막는 존재로 인식[97]하고, 이들의 제거를 海神께 희구함으로써 사행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러한 해신제는 사행원들의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은 통신사행의 渡日時 일본으로의 출발지점이면서 歸還時 조선으로의 도착지점이 되기도 했다.

> ㈎ 부산의 永嘉臺 아래에서 배를 출발하였다.[98]
>
> ㈏ 배안에서 永嘉臺와 太宗臺 등을 바라보니 마음과 혼이 날고 솟구쳐 능히 스스로 걷잡을 수 없었다. 누선에 올라앉아 독

96) 南龍翼, 『扶桑錄』, 「扶桑日錄」, 乙未年, 4/21, 〈祭海神祝〉. 層濤駭浪 性命髮毫 微神之賜 何以利涉 不敢愛身 王事是急 神其保佑 勤戒風伯 速惠便順 屛去饕惡 鯨鮫慴伏 鮫鱷遁避 張帆擧碇 一瞬千里 毋遲毋礙 載安載全 直抵扶桑 計日回船.

97) "사방의 요사스런 기운(四維厲氛)"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쓰고 있는 1617년 사행을 제외하면, 대개 고래·악어(1719년), 상어·악어(1763년), 고래·이무기·악어(1655년) 등이 사행을 가로막는 존재로 부각된다.

98) 『通文館志』, 卷6 「交隣」, 15 〈水陸路程〉. 自釜山永嘉臺下 發船.

축관과 함께 술을 한 잔 마시고 서로 축하하였다. 뱃사람들이 모두 뛰고 춤추며 힘을 다하여 노를 흔들었다.[99]

이상에서 보듯 통신사행에 있어 부산은 對日외교의 중심지, 국가차원의 전별연 개최지, 渡日前 통신사행의 최종점검지, 그리고 海神祭享地 및 통신사행의 往還지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Ⅳ. 通信使 文學에 들어앉은 부산의 모습

통신사의 부산 체류기간은 對馬島가 종착지였던 1811년 사행을 제외하면 짧게는 16일(1617년)에서 길게는 51일(1719년)정도였다. 그 결과 평균 약 30일 동안 부산에 체류하다보니 사행원들의 부산지역 명소에 대한 관광은 거의 정례화 되다시피 했다. 사행원의 관광은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100]을 가중시킨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산을 소재로 한 詩文의 창작동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실제 사행록에 반영된 부산에 머물렀던 통신사 사행원들의 詩作 풍경을 엿보기로 한다.

연일 숙소에 있는데 바닷가의 더운 독기가 옷과 이불에 가득하

99) 南龍翼, 『扶桑錄』, 丙申年, 2/10. 舟中望見永嘉太宗等臺 令人心魂飛聳 不能自定 上座樓船 與讀祝酌一盃相賀 舟人等皆鼓舞歡抃 竭力搖櫓.

100) 『海雲臺의 옛 모습이 담긴 東下面古文書』(해운대구청, 1994, 66-75쪽)에 따르면 사행원들에게 가장 유명했던 해운대의 경우 그 지역민들이 사행원의 관광을 위해 차일·돗자리·멍석·長席 등을 조달하고 임시가옥 조성을 위한 소나무를 작벌, 운반하는 役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였다. 남풍이 뱃길을 막아 客懷가 괴로웠다. 때로 세 書記들과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데, 成汝弼이 韻을 부르기가 바쁘게 대꾸하여 더러는 수십 韻이 되기까지도 하여 빠르기가 마치 북채로 북을 치면 소리나듯 하였다. 시는 모두 散草이어서 기억하지 못한다.[101]

체류기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시를 짓되 서로 빨리 짓기를 경쟁하였다는 내용이다. 바로 이 詩文 酬唱의 과정에서 그동안 유람했던 부산지역 名所에 대한 감상이 자연스레 표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통신사 사행원의 문학에 부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그 노정을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1. 東萊

통신사가 일본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 국내노정은『增正交隣志』·「路文式」에도 보이듯 대체로 '慶州-仇於-蔚山-龍堂-東萊-釜山'등이었다. 동래는 '동쪽의 蓬萊山'을 줄인 데서 알 수 있듯 당시 서울에서 출발한 사행원들에겐 '神仙이 사는 勝景'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꼭 한 번 찾고 싶은 곳이었다. 1643년 사행의 正使 尹順之는 서울로부터 약 20여 일에 걸친 노정 끝에 동래에 도착하여, 마침내 목적지인 부산을 지척에 둔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 이제야 땅 끝난 곳에 닿았는데 / 이 행차 아직 끝난 게 아니라네 / 봉래산은 만리나 멀고 / 푸른 바다에는 한 조각 배만 떠 있네 / 비록 뗏목 타야할 곳이라 해도 / 나라를 떠나는 근심만 없기를 바랄 뿐 / 아침에 와서 양 귀밑머리 어루만지다 / 문득 갯버들 보

101) 申維翰,『海游錄』上, 己亥年, 5/18. 自是以後 連在館次 海天炎瘴 滿衣衾 南風遏帆 客懷煩惱 時與三書記 會坐觴咏 觀成汝弼 應口猝唱 或至數十韻 捷若桴鼓 詩皆散草不錄.

니 놀라워라 벌써 가을이구나.[102]

동래에 도착한 기쁨도 잠시, 오히려 오랑캐 땅인 일본을 향해 떠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묻어난다. 하지만 이내 使命을 받은 사신답게 나라를 떠나는 근심만 없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

국내 노정 중 최종 종착지인 부산을 지척에 앞둔 여유가 묻어서인지 동래에 도착한 사행원들은 어느 정도의 遊樂도 즐긴 것으로 나타난다.

㈎ 조반 후에 東軒에 앉아 일행 군관으로 하여금 두 패로 나누어 활을 쏘게 한 뒤 이긴 편은 상을 주고, 진 편은 벌주를 마시게 하였다.[103]

㈏ 萊州의 주인 가장 풍류가 있어 / 날 위해 높은 누각에 화려한 잔치자리 베풀었네 / 萊州의 기생 비단옷 입고 춤추며 / 손님을 대하여 萊州歌를 부르는데 / 그 노래소리 지극히 애처로우니 / 그대에게 萊州의 술잔 다 마시길 권하네.[104]

㈎의 활쏘기는 조엄의 『海槎日記』(癸未年, 8/21)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의 기생과 풍악을 동반한 연회자리도 대체로 사행록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사행원들에 의한 활솜씨 겨루기와 그 뒤를 이어 마련되는 宴會는 사행이 동래에 이르면 거의 정례화된 遊樂이었음을 알 수 있다.

---

102) 尹順之, 『涬溟齋詩集』, 卷3, 「詩」, 〈到東萊感懷〉. 今到地窮處 此行猶未休 蓬山萬餘里 滄海一扁舟 縱有乘槎地 寧無去國愁 朝來撫雙鬢 蒲柳已驚秋.

103) 姜弘重, 『東槎錄』, 甲子年, 9/15. 食後坐東軒 令一行軍官分耦射帿 行賞罰杯.

104) 南龍翼, 『扶桑錄』, 「扶桑日錄」, 乙未年, 4/21, 〈萊州歌贈萊州韓使君震琦仍呈兩使〉. 萊州主人最風流 爲我高閣張華筵 萊州女兒舞綺羅 對客仍唱萊州歌 萊州之歌聲正哀 勸君且盡萊州杯.

2. 忠烈祠

동래의 충렬사는 壬亂 때 왜적과 싸우다 장렬하게 산화한 동래부사 宋象賢과 부산첨사 鄭撥, 다대첨사 尹興信 등 忠臣 37인과, 송상현의 첩 金蟾과 정발의 첩이었던 愛香 등 孝烈 4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당시 부산을 찾은 문사들은 충렬사를 찾아 그들의 순국을 기리며 많은 시를 남겼다. 곧 선조41년(1608) 동래부사로 부임한 李安訥의 〈二月十五日入東萊府〉, 현종 11년(1670) 宣慰使로 부산을 찾은 申晸의 〈萊州曲〉, 숙종 7년(1681) 동래부사로 부임한 蘇斗山의 〈題忠烈祠〉등이 그 예이다.

또 충렬사는 사행의 국내노정 종착지인 부산의 길목에 있었기에 사행원들의 방문도 줄을 이었다.

> 동문나 십니가셔 충녈ᄉᆞ 추ᄌᆞ가니 / 용쳔곡 뎡장군의 ᄉᆞ익ᄒᆞᆫ 비문일셰 / 충녈을 감격ᄒᆞ야 공경ᄒᆞ야 지빈ᄒᆞ고/ 우리길 싱각ᄒᆞ니 괴루ᄅᆞᆯ 금ᄒᆞᆯ소냐.[105]

충렬사는 선조38년(1605) 동래부사 尹暄이 처음으로 건립한 이래 인조 2년(1642) 宣慰使 李敏永의 요청에 의해 賜額된 사당이다. 김인겸은 송상현과 정발로 대표되는 '忠烈'과, 통신사행에 나서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눈물'을 대비시킨다. 곧 왕명을 수행한다는 긍지의 이면에, 不俱戴天의 일본에 사신가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는 사행원들의 심정이 잘 녹아 있다.

또 사행원들은 충렬사와 함께 인근의 靖遠樓에도 올랐다. 동래 객관 주변의 積翠亭·揖升亭과 함께 명소로 손꼽혔던 정원루는 동래부

105) 金仁謙, 〈日東壯遊歌〉.

東軒과 客館의 북쪽에 있던 누각으로 세종 28년(1446) 동래에 부임한 金時露가 지은 것이다. 지금은 宋公壇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임란때 동래부사 宋象賢이 순절하였던 곳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일본 본토인 江戶가 아닌 對馬島에서의 易地聘禮가 시행된 1811년 사행의 경우 정사와 부사가 정원루에 올라 종일 음악연주를 듣기도 했다.[106]

3. 釜山

동래를 떠난 통신사는 '三使臣의 軍官 - 三使臣 - 員役'의 차례로 행렬을 지어 倭館이 있는 부산을 향했고[107], 부산의 接待官들은 10리 쯤 앞에 나와 통신사행을 맞아들이는 것이 古例[108]였다. 사행원들이 마지막 종착지인 부산에 도착해서 머문 곳은 宣慰使·通信使 등 사신들이나 觀察使·府使·僉使 등 지방관 일행이 머물렀던 釜山鎭城의 客舍였다. 부산객사는 국내 노정 중 渡日을 앞둔 최종 종착지인 까닭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숙박기간이 길었다. 머문 기간이 길었던 만큼 또한 통신사 문학에는 객사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명소에 대한 감상도 많이 보인다.

먼저 객사 뒤편 甑山에 올라 바라본 부산의 모습이다. 甑山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부산은 東平縣에 있으며 산이 가마솥 모양과 같아서 이렇게 이름 지었다. 그 아래가 바로 釜山浦이니 늘 거주하

106) 柳相弼, 『東槎錄』, 辛未年, 3/2. 兩使臣步上靖遠樓 終日奏樂. 엄경흠은 영조 18년(1742) 靖遠樓가 있던 곳에 宋公壇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때쯤 누각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東槎錄』이 마지막 사행인 1811년 사행기록임을 고려하면 靖遠樓는 적어도 19세기 초반까지는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엄경흠, 『한시와 함께 하는 시간여행』 (전망, 1997), 115쪽 참조.

107) 姜弘重, 『東槎錄』, 甲子年, 9/16. 食後 上使以下 皆具冠帶陳儀物於前 一時發行 蓋以倭館在釜山故也.

108) 金世濂, 『海槎錄』, 丙子年, 9/6. 上副使從事官所率軍官 幷令前導 三使臣相繼行 員役皆鱗次以從 蓋古事如此.

는 왜인들이 있으며 북쪽으로 縣까지의 거리는 21리다"[109]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釜山'이란 지명의 형성과 관계가 있는 산이다.

> ㈎ 산 모양은 거의 가마솥 같고 / 성문은 바다를 향해 열렸네 / 민가는 옛날의 가칠메 / 빼어난 경치는 태종대 / 섬들은 하늘 멀리 이어져 있고 / 파도는 땅을 삼킬 듯 몰려오는데 / 사신들 머무는데 날만 지체되니 / 올라서 구경하며 함께 서성인다네.[110]
>
> ㈏ 낮에 上使·從事官과 함께 부산 甑城의 砲樓에 오르니 海門은 넓게 통하고 고깃배는 점점이 떠 있다. 絶影島 밖에 아물아물 보이는 산봉우리가 있으므로 지방사람에게 물으니 "이는 對馬島로 맑은 날에는 이처럼 똑똑히 보입니다"라고 하였다.[111]

客舍가 속해 있던 釜山鎭城을 비롯해서 사람살이가 적당했던 동래, 빼어난 절경의 太宗臺, 그리고 바다에 맞닿아 있는 影島와 심지어 對馬島까지 그리고 있어 그야말로 부산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부산객사에 머물렀던 사행원들은 대체로 甑山城[112]에 올라 부산 지역을 조망한 것으로 보인다.

---

10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3, 東萊縣, 山川, 釜山. 在東平縣 山如釜形故名 其下卽釜山浦也 有恒居倭戶 北距縣二十一里.

110) 申濡, 『海槎錄』, 「申竹堂海槎錄」, 〈登釜山次螺山〉. 山勢亞如釜 城門臨水開 人煙古萊國 形勝太宗臺 島嶼連天遠 波濤拔地廻 使華留滯日 登眺共徘徊.

111) 姜弘重, 『東槎錄』, 甲子年, 9/20. 午與上使從事 上釜山甑城登砲樓 海門通闊 漁舟點點 有嶠遠遠露出於絶影島之外 問諸土人 則云是對馬島 淸明之日 入於眺望者 如是分明云.

112) 甑山城은 원래 있던 釜山城이 1592년 小西行長의 선발대에 의해 함락된 뒤 毛利輝元 등 일본인들에 의해 재조성된 것으로, 주둔군 우두머리의 이름을 따 달리 '小早川城'으로 불리기도 하는 성이다. 지금은 부산금성고등학교 뒤편 산으로 성터만 남고 증산공원으로 바뀌어져 있다.

또 客舍가 작별의 심회를 나누는 공간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 ㈐ 賓館에 묵으면서 이별이 애석하여 / 그대 나를 전송하려 하늘 끝닿은 데까지 멀리도 왔네 / 膠漆보다 깊은 정을 뉘라서 떼놓으리 / 興이 다해도 술잔은 다시 더디게 돌아가네 / 푸른 바다에 비는 개어 가는 배 아득하고 / 붉은 성에 바람 급한데 피리소리만 슬퍼구나 / 내일 아침 돌아보면 거리가 천리나 되겠지만 / 꿈에라도 서로 만나 그리움을 위로하세나.113)
>
> ㈑ 城머리 북과 피리소리 청초한 가을날 / 도호부 行營은 큰바닷가에 있네 / 이번 걸음 풍파 없이 잘 다녀오리니 / 작별하는 친구들아 깊은 시름일랑 하지 말게 / 먼 산에 안개 걷히자 봉우리 솟아나고 / 포구 가득 밀물이 넘쳐 땅이 둥둥 뜨려하는데 / 어느날 서울에서 다시 만날거나 / 석양에 홀로 鎭東樓에 기대노라.114)

글㈐는 1643년 사행의 從事官 申濡가 자신을 환송하기 위해 먼 걸음을 한 절친한 친구 鄭士興과 객관에서, 글㈑는 부사 김세렴이 外從弟 許岱와 子城臺 鎭東門에서 이별하는 애석한 심정을 그리고 있다. '푸른 바다에 비는 개어 가는 배 아득하고'·'포구 가득 밀물이 넘쳐 땅이 둥둥 뜨려 하네' 등에서 엿볼 수 있듯, 한결같이 渡海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애써 숨기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다.

한편 사행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渡海가 지체되어 전체 사행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심정도 함께 드러내기도 한다.

---

113) 申濡,『海槎錄』, 「申竹堂海槎錄」,〈鄭都事士興來別釜山館信宿將行走筆題扇〉. 賓館淹留苦惜離 憐君送我到天涯 情深膠漆誰能別 興盡壺觴故復遲 碧海雨晴帆影遠 朱城風急角聲悲 明朝回首成千里 魂夢猶堪慰所思.

114) 金世濂,『槎上錄』,〈次外弟許岱韻〉. 城頭鼓角咽淸秋 都護行營大海陬 此去風濤應好返 別來親友莫深愁 遙山霧歇峯如抃 極浦潮平地欲浮 京國重逢更何日 夕陽獨倚鎭東樓.

> 아름다운 피리소리 밤중에 들리는데 / 봄 깃발이 바닷가를 둘러 있네 / 고래가 내달리니 물결이 급한 줄 알겠고 / 大鵬이 날개를 치니 마치 구름이 드리운 듯 / 웅장한 劍은 북두칠성과 남두칠성을 찌르는데 / 사신의 뗏목은 날짜만 허비하고 있네 / 갈 길은 먼데 順風만 기다리고 있으니 / 언제 떠날지 기약할 수 없다네.[115]

海神祭까지 지내고 發船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바다는 물결이 치고,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하기만 하다. 한시바삐 일본으로 가서 使命을 완수하고픈 심정은 마치 龍泉劍과 太阿劍의 정기가 북두칠성과 남두칠성을 꿰뚫는 것과 같지만, 바라는 순풍은 기약이 없어 답답한 심정을 잘 그려내고 있다.

4. 鄭墓

부산 객사와 가까운 甑山에 올라 부산을 조망하던 사행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影島와 鄭墓였다.[116] 특히 鄭墓는 대대로 戶長을 지낸 東萊 鄭氏의 시조 鄭文道의 묘를 일컫는 것으로, 鄭墓가 유명하게 된 데는 아들 鄭穆이 아비의 무덤을 明堂에 써 자신을 비롯한 후손들이 發福하였다는 일화에 기인한다. 지역에 전하고 있는 관련설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래부사의 몸종인 鄭穆은 어느날 夜行을 가는 府使를 미행하다 부사가 和(華)池山에 이르러 "明堂이긴 한데 역적 바위가 영도

115) 申濡,『海槎錄』,「申竹堂海槎錄」,〈次倖溟釜山館韻〉. 畫角吹殘夜 春旗繞海湄 鯨奔知浪急 鵬擊若雲垂 雄劍干星斗 孤槎費日時 脩程候風便 未敢指前期.

116) 실제 甑山城이 있던 자리에 새로 조성된 오늘날의 '甑山公園'에 오르면 影島가 한 눈에 들어오고, 특히 鄭墓는 빽빽한 고층건물 사이에서도 확연하게 그 자태를 간직하고 있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 앞에 있어 역적밖에 날 수 없다"고 한탄하는 것을 몰래 엿듣는다. 며칠 후 鄭穆은 부사에게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간청하여 아비 정문도의 묘를 移葬했다. 그후 도깨비들이 金槨이 들어갈 자리에 거적떼기가 들어갔다며 무덤 파헤치기를 계속하자 보리 짚을 곱게 엮어 넣음으로써 禍를 면하고 무덤을 쓸 수 있게 된다. 묘를 쓴 사나흘 후 벼락이 영도 앞에 있는 역적바위를 쳐서 부수어버린다. 정목은 동래부사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 공부한 후 동래부사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 후 자손 중에 정승판서가 많이 배출되었다.[117]

조상의 墓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明堂風水說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실제 鄭文道의 아들 鄭穆은 이후 科擧에 나가 大府卿을 지냈고, 정목의 네 아들 중 漸·澤·沆 역시 과거에 나가 각각 刑部郎中·給事中·禮部尙書 벼슬을 하였다. 그리고 沆의 넷째 아들이자 고려가요 〈鄭瓜亭〉의 작자인 鄭敍도 侍郎벼슬을 하였으니 그야말로 명당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셈이다.

이와 같은 鄭墓가 조선시대에까지 明堂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 舊傳에 對馬島主 宗氏의 조상도 이 산에 장사지냈다 하나 지금은 그 곳을 알 수가 없다. 術士가 말하기를 "鄭氏의 자손은 큰 벼슬을 받은 자가 많고, 宗氏 역시 대대로 島主를 세습하니 그 귀함이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다.[118]

日本 對馬島의 최고권력자인 宗氏의 조상묘도 바로 和池山에 모셔

117) 金承璨, 「동래 정씨 시조 묘터(Ⅰ)」, 『慶南地方의 民譚』 (第一文化社, 1986), 232-235쪽.

118) 『東萊府誌』, 〈山川〉, 「和池山」. 舊傳對馬島主宗氏之祖 亦葬此山 今失其處 術士謂鄭氏之子孫多大拜 宗氏亦世襲島主 其貴略敵云.

졌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만큼 鄭墓가 풍수적으로 명당이었음을 입증하는 예가 되는 셈이다. 실제 18-19세기에 對馬島 通詞로 활약했던 小田幾五郎(1754-1831)의 『象胥紀聞』에도 鄭墓가 언급[119]되어 있을 정도이니, 그리 허망한 이야기는 아닐 성 싶다.

1682년 통신사행에 漢學譯官으로 참여한 金指南은 부산객사에서 10리나 떨어져 있던 鄭墓를 찾은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華池山 萬世菴에 가 보았다. 소나무와 전나무, 꽃과 대나무가 다투어 빼어나 산에 가득하다. 앞으로 평야가 놓여 있고 밖으로는 큰 바다가 흐른다. 뜰 앞에 있는 귤나무가 푸른 잎은 성기고 푸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다. 암자의 북쪽 기슭은 바로 옛날 본부의 戶長 鄭文道의 묘이다. 地脈이 華池山으로부터 구불거리며 들어와서 우뚝 솟았다가 빙돌아 다시 하나의 긴 乳穴을 이룬다. 明堂이 야무지게 맺히고 靑龍과 白虎는 몇 리를 휘감는다. 內堂의 물은 빙빙 돌아서 동구로 나가다가 다시 白虎를 돌아 바다로 들어간다. 앞 뒤 도와주는 산들이 옹위하고 벌여 있는데 큰 바닷물 한 줄기가 특히 명당에 조회하는 듯하다. 앞에는 큰 들이 펼쳐져 있고 외청룡, 외백호는 큰 산이 내달아 있어 숨어 누워 있는 용과 쭈그리고 있는 범과 같다. 바다 속의 絶影島는 그 外案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이 墓의 기이한 모양이다. 일찍부터 익히 듣기는 하였지만 한 번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올라가 보니 과연 거짓이 아니었다.[120]

---

119) 小田幾五郎 저・栗田英二 역주, 『象胥紀聞』, 下, 雜文(이회, 2005), 179쪽. "경상도 동래 지방에 鄭墓라는 것이 있다. 지금 宰相의 조상 산소로, 유명하여 서울 사람들도 가끔 구경하러 온다고 한다. (중략) 그후 점차 출세하여 마침내 재상 자리에 오르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13대 재상을 내리하여 지금은 重臣이라 한다."

120) 金指南, 『東槎日錄』, 「日錄」, 壬戌年, 6/17. 往觀華池山萬世菴 松檜花竹 競秀滿山 前臨平野 外帶巨海 庭前橘樹 綠葉扶疎 靑實團團 菴之北麓 乃昔日本府戶長鄭文道之墓也 地脈自華池山逶迤以來 屈起盤旋 復作一長乳穴 明堂緊束 龍虎數里

鄭墓는 화지산의 主脈이 가운데로 뻗어내리고, 좌우에 荒嶺山과 白楊山 산줄기가 마치 호위하듯 둘러쳐져 있는 데다, 絶影島가 主山에 대해 책상의 구실을 하는 이른바 外案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墓를 陰宅이라고까지 지칭하며 그 위치 선정을 중시하던 조선조 先人들의 풍수사상을 엿볼 수 있다. 곧 당시 사행원들은 한결같이 鄭墓의 明堂으로서의 입지조건과 景觀에 놀라고 있었던 것이다.

5. 부산의 3絶景-永嘉臺・沒雲臺・海雲臺

당시 부산에 도착한 사행원들이 가장 絶景으로 손꼽았던 名所는 어디였을까? 그 단서를 1719년 제술관으로 통신사행에 참여한 申維翰의 다음 글에서 엿보기로 하자.

> 동래부는 靑丘의 동남쪽 큰 바닷가에 있다. 여러 섬과 암초들이 구름과 안개 사이로 곳곳에 들어서서 파도에 씻기며, 웅크린 이무기나 고개 쳐든 사자, 노한 大鵬의 등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몰운대, 해운대, 영가대 등이 있어 이를 세 가지 절경이라 한다. 지명을 蓬萊라 끌어대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한다.[121]

申維翰은 일본에서만 무려 6000여 수의 唱和詩와 贈詩를 남긴 인물이다. 그는 자신을 "날마다 벼루와 먹 사이에다 머리를 구부리고

內堂水盤回出洞 轉遶白虎而入海 前後輔弼 擁衛森列 巨海一枝 特朝於堂前 而前控大坪 外龍虎則大山奔馳 隱如臥龍蹲虎 海中絶影島 作其外案 此墓之奇狀 曾所飽聞 而無路一見 今日登眺 果不誣矣.

121) 申維翰, 『靑泉集』, 卷5, 「跋」, 〈海雲雙遊圖跋〉. 東萊府 在靑丘東南大海之灣 諸島嶼洲磯 斗插雲霞 浸漶波浪 爲伏虵爲昂獅 爲怒鵬之背者 有臺曰沒雲 曰海雲 曰永嘉 是爲三絶景.

있으면서 신 것, 매운 것을 참고 삼키는 것이 마치 연자매를 돌리는 당나귀가 밟던 발자국을 그대로 밟는 것과 같았다"[122]고 표현할 정도로 일본인들의 詩文 요청에 적극 응대했던 인물로, 그의 사행록인 『海游錄』은 이후 사행원들의 참고서적이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申維翰의 평가는 뒤를 잇는 사행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실제 통신사의 사행록에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문들이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1) 永嘉臺

영가대는 1614년 순찰사 權盼이 戰船을 감추기 위해 선착장을 만든 뒤 연못에서 파낸 흙이 언덕이 된 곳에 세운 8간 누각으로, 엄밀히 말하면 전함 繫留 船着場 조성의 副産物이었다. 『釜鎭諸詠』에는 당시 선착장의 조성으로 태풍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났음을 칭탄하는 지역인들의 노래가 전하고 있다.

> 중추 팔월에 / 하늘이 큰 파도를 일으켰으나 / 우리가 가진 큰 배는 / 고요하게 떠 / 놀라서 흔들리지도 않으니 / 배가 아니라 집일세 / 내 말을 못 믿겠거든 / 새로 판 항구를 보아라 / 바닷물은 도도히 흘러 / 항구를 이루었고 / 넓게 퍼진 육지에는 / 배도 다닐 수 있네 / 이는 공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공이요 / 정녕 하늘의 공이요 / 우리 공의 힘이 아니니라.[123]

또 영가대는 그 높은 위치로 敵情探索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는 1763년 사행에 書記로 참여했던 金仁謙의 使行歌詞인 〈일동장유가〉

122) 申維翰, 『海游錄』 下, 己亥年, 12/26. 所以日俯首硯墨之場 呑酸呑辛 莫非磨驢故跡 可笑.

123) 李敏求, 「永嘉臺記」, 『釜鎭諸詠』. 中秋八月 天作洪濤 我有巨艑 載靜載浮 不震以驚 匪舟伊屋 爾不我信 起視新鑿 渾渾海流 可以咸丘 衍衍之陸 可以行舟 咨惟我公 實天與功 實天與功 匪由我公.

에 잘 반영되어 있다.

> 황산 말 가라타고 영가ᄃᆡ 올나가니 / 동남의 요튱(要衝)이오 히(海)의 인후(咽喉)로다 / 셩지(城池)도 금탕(金湯)이오 여염도 장홀시고 / 왜관과 절영도ᄂᆞᆫ 팔댱처로 환포(環抱)ᄒᆞ고 / 그밧근 무변ᄃᆡ양(無邊大洋) 하ᄂᆞᆯ의 다하잇고 / 그안은 호슈처로 안은ᄒᆞ고 광할ᄒᆞ다.[124]

군사요충지로서 영가대의 주변경관이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한편 영가대는 앞서 밝혔듯이 渡日을 앞둔 사행원들이 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기도 했다. 申維翰은 영가대에서 행해진 해신제의 모습을 "節旄·鼓角·자리·장막 등 무릇 사신 행차에 따른 기구와 복장의 성대한 것이 총총히 그 밑에 빙 둘러섰는데 울연하여 마치 무성한 숲과 같았다"[125]고 적고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 영가대는 사행의 출발과 귀환장소였다.

> 사절 또한 머물며 모두 흠뻑 취했는데 / 뱃노래로 장차 출발하려니 문득 슬픈 마음이 이네 / 부상 무성한 섬은 끝이 없는 길인데 / 이번 가면 해 지나 가히 돌아 올 수 있을까.[126]

많은 사람의 환송을 받고 떠나긴 하지만 사공의 뱃노래에 그만 슬픈 마음이 일고 마는 것은 고국산천을 떠나기 때문이요, 불확실한 귀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渡海를 앞둔 사행원의 진솔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가대는 이와 같은 현실적 목적 외에

---

124) 金仁謙,「日東壯遊歌」.

125) 申維翰,『海游錄』上, 己亥年, 6/6. 節旄鼓角茵帳 凡使行器服之盛 簇簇環其下 蔚然若豐林碩草.

126) 洪世泰,『柳下集』, 卷11 「詩」,〈雨中登永嘉臺〉. 使節且留須盡醉 棹歌將發忽生哀 扶桑鬱島無窮路 此去經年可得回.

바다를 임한 빼어난 경치로 더욱 이름이 높았다.

> 8간의 작은 누각을 높은 墩臺 위에 지었는데 형세가 하늘 가운데 솟은 것 같았다. 그리고 거북이가 엎드린 것 같은 영가대의 모양은 사방에서 보아도 똑같아 저절로 仙境의 별천지를 이루었다. 옛날 王禹偁이 小竹樓로서 오히려 齊雲樓나 落星樓를 압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저 嶺南樓와 朝陽閣도 道內에서는 이름난 누각이지만 여기 영가대에 첫머리를 양보함이 마땅하다. 東州(李敏求)公이 절경이라 말했는데, 정말 좋은 경치인 것이다.[127]

府使 權孚가 고조부인 權盼이 조성한 永嘉臺에 올라 그 경관이 北宋의 문인 王禹偁의 '小竹樓'에 비견되고, 嶺南을 대표하는 밀양의 '嶺南樓'나 영천의 '朝陽閣'보다 뛰어나다고 찬탄하고 있는 대목이다. 영가대의 경관은 戊午年(1618년) 重陽節에 영가대를 방문했던 李璦가 7언 절구로 된 「永嘉臺八景」을 읊으면서 〈影島歸帆〉·〈倉浦落鴈〉·〈蠻寺曉鐘〉·〈龜峯夕燧〉·〈降仙流雲〉·〈勝鶴暗嵐〉·〈水晶返照〉·〈荒嶺霽月〉 등을 구체화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128]

2) 沒雲臺

沒雲臺는 16세기까지 '沒雲島'라 불렸다는 데서 알 수 있듯 부산의

---

127) 權孚, 〈永嘉臺記〉, 『東萊府誌』, 「題詠雜著」. 作小樓八間於墩上 處勢當中穹然若伏龜四望 同自成壺裡別界 昔王禹偁以小竹樓 猶壓倒齊雲落星 彼嶺南樓朝陽閣道內名構 而宜讓一頭於此耳.

128) 李璦, 「永嘉臺八景」, 『釜鎭諸詠』. 이밖에 영가대를 소재로 한 대표적 題詠詩로 『海行摠載』에 申濡의 〈永嘉臺〉와 南龍翼의 〈過水宗望永嘉臺志喜〉가 있고, 『東萊府誌』, 「題詠」條에는 尹順之·趙絅과 같은 通信使와, 李之翼·鄭晳·李馥·鄭昌胄·李勉餘·權孚 등의 東萊府使, 都事 尹攀, 그리고 金子昻·李玄紀·崔守範 등의 接慰官 및 巡撫御使 尹綏의 漢詩가 전한다. 이외에 歌辭작품으로 1867년 부임하여 6년 정도를 부산에서 지낸 동래부사 鄭顯德이 "몰운대 해운대 난 勝地라 이르니라 / 영가대 노푼집은 釜山景槪 제일이라"고 영가대의 절경을 칭송한 〈蓬萊別曲〉이 있다.

등줄인 금정산의 末端이 바다에 빠져 들어 형성된 섬이다. '몰운대'는 '다대포 남쪽 1리에 있다'[129]는 『東萊府誌』의 기록처럼 낙동강 하구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개와 구름이 끼는 날에는 그 속에 잠겨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구름 속에 빠진 섬'이란 뜻을 담아 '몰운대'란 지명이 유래되었는데, 통신사행과는 무관하지만 일찍이 동래부사를 역임한 李春元은 지명과 관련된 風光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 호탕한 바람과 파도 천리 만리에 이어졌는데 / 하늘가 외로운 臺는 흰구름에 묻혔네 / 부상에 돋는 새벽 해는 붉은 수레바퀴 같아 / 항상 신선이 학을 타고 온다네.[130]

흰 구름에 묻히고 새벽에 떠오르는 해로 붉게 물든 몰운대의 모습이 마치 仙境과 같아 항상 神仙이 학을 타고 노닌다고 표현하고 있다. 당시 渡日을 위해 영가대를 출발했던 통신사행은 폭풍우 등으로 일본으로 떠나지 못하고 다대포로 돌아와 날이 개기를 기다려 다시 날을 잡아 출발한 경우도 빈번했다. 그 결과 몰운대를 관광한 흔적이 사행록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 ㈎ 배를 타고 몰운대에 가서 조용히 유람하고 절영도의 왜관 앞을 지났다.[131]
>
> ㈏ 제술관 및 서기와 함께 다대포 몰운대에 갔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다.[132]

---

129) 『東萊府誌』, 「古跡」. 沒雲臺 在多大浦一里云.

130) 李春元, 〈沒雲臺〉, 『東萊府誌』, 「題詠雜著浩」 蕩風濤千萬里 白雲天半沒孤臺 扶桑曉日車輪赤 常見仙人駕鶴來.

131) 慶暹, 『海槎錄』上, 丁未年, 2/19. 乘船往沒雲臺 從容遊覽 行過絶影島倭館前.

132) 柳相弼, 『東槎錄』, 「日記」, 辛未年, 윤3/7. 製述官及書記 偕往多大沒雲臺 日暮回路.

㈎는 조선후기에 최초로 행해진 1607년 사행의 기록이고, ㈏는 최후에 행해진 1811년 사행의 기록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당시 사행원들의 배를 통한 몰운대 관광은 거의 정례화 되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 1763년 사행에 書記로 참여한 김인겸은 몰운대에 대한 감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남문을 ᄂᆡ다라셔 물운ᄃᆡ롤 ᄎᆞᄌᆞ가니 / 평지의 힝뇽(行龍)ᄒᆞ야 봉(峰)ᄒᆞ나히 니러셔셔 / 달무리 ᄌᆞ로쳐로 바다히 ᄲᅥ처시니 / ᄃᆡ(臺)우의 올나안ᄌᆞ 좌우롤 도라보니 / 바둑처로 버린섬이 예도잇고 제도잇셔 / 형형식식으로 긔긔괴괴ᄒᆞ야 / 괴셕(怪石)갓튼 것도 있고 소라갓튼 것도 잇다 / 창망ᄒᆞᆫ 우연(禹淵)밧긔 만산(萬山)이 은영(隱映)ᄒᆞᆫ다 / 심ᄃᆡ듕 이롤보고 손등치고 ᄎᆞ탄ᄒᆞ되 / 관동구군(關東九郡) 좃타ᄒᆞ나 이런ᄃᆡ는 못보앗ᄂᆡ / 우리나라 히산(海山)듕의 제일이라 ᄒᆞ리로다 / 광활ᄒᆞ고 통창키는 ᄒᆡ운ᄃᆡ만 못ᄒᆞ여도 / 긔묘ᄒᆞ고 절승키ᄂᆞᆫ 마이낫다 ᄒᆞ리로다.[133]

臺에 올라 바라본 바다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김인겸은 몰운대를 '關東八景'으로 대표되는 關東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경관으로 간주한다. 곧 몰운대가 우리나라 바다와 산 가운데 최고이고, 광활하고 통창하기는 해운대만 못하여도 기묘하고 절승한 것은 해운대 보다 낫다고 평가한다. 1643년 사행의 從事官 申濡도 "우뚝 솟은 높은 臺가 바다 위에 떴는데 / 산허리엔 사철 흰 구름이 머물러 있네 / 玉京이 예서부터 그리 멀지 않으리니 / 하필 신선의 뗏목 타고 斗牛星을 범할까"[134]라고 읊어 몰운대를 옥황상제가 사는 玉京에 비김으로써

133) 金仁謙,「日東壯遊歌」.
134) 申濡,『海槎錄』,「申竹堂海槎錄」,〈釜山五絶-沒雲臺〉. 矗矗高臺海上浮 峯腰常見白雲留 玉京此去應非遠 何必仙槎犯斗牛.

가히 '몰운대 찬가'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그 風光을 극찬한다.

이처럼 몰운대는 구름에 휩싸인 비경으로 인해 당시 사행원들에겐 仙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海雲臺

해운대는 산과 강, 바다에다 온천까지 갖춘 소위 '四抱之鄕'의 明堂으로, 일찍부터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인식되어 부산을 찾은 詩人墨客들의 첫 번째 玩賞處가 되곤 했다. 게다가 東國文宗이라 일컬어지는 신라시대의 학자 崔致遠이 일찍부터 노닐었던 까닭에 우리 문헌에는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해운대를 소재로 한 많은 시문이 존재[135]하게 되었다. 먼저 객관적인 기록으로서 『東萊府誌』에 소개된 해운대의 모습을 살피기로 하자.

> 府의 동쪽 18리에 있다. 산이 바다 가운데로 누에의 머리처럼 들어온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겨울에 푸른 杜冲·松杉·蔥籠이 사철 한결 같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시기에는 동백꽃이 땅에 쌓여서 관광객이 타고 오는 말굽이 3-4寸이나 빠진다고 한다. 남쪽으로 對馬島를 바라볼 수 있다. 신라의 최치원이 일찍이 臺를 쌓고 遊賞하니 옛 자취가 아직 남아 있다. 최치원은 字를 海雲이라 하였다.[136]

일찍이 成俔이 해운대를 유람하면서 '눈 속에 핀 붉은 꽃을 보지 못해 한탄했다'[137]고 하는 동백꽃이 유명하고, 일본의 對馬島를 볼

---

135) 해운대와 관련된 시문은 『해운대 천년의 서정』 (해운대구 문화공보실, 1994)을 참조.

136) 『東萊府誌』, 「古跡」, 〈海雲臺〉. 在府東十八里 有山而入海中若蚕頸 其中皆冬青杜冲松杉蔥籠 四時如一 冬春之交 則冬栢花積地 遊人馬蹄 入三四寸 南望對馬島 新羅崔致遠 嘗築臺遊賞 遺跡尙存 致遠字海雲云.

137) 成俔, 『虛白堂詩集』 卷之五, 「詩」, 〈海雲臺〉. 巨浸茫茫望不窮 始知天地似蝱蠓

수 있는 데다 崔致遠과 관련이 있는 古跡이 많은 곳이 바로 해운대라는 설명이다. 최치원은 伽倻山으로 入山하는 길에 이곳을 들렀다가 주변 경관이 너무 훌륭해 臺를 쌓고 동백섬 내의 바위에 '海雲臺'라는 글씨를 남김으로써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져 오는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당시 해운대를 찾은 문인들은 자신들의 시문에서 최치원을 '千古儒仙'[138] · '海雲之仙'[139] · '海上仙'[140] 등으로 지칭하면서 해운대와 최치원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詩文을 유달리 많이 남기곤 했다. 사행에 참여한 문사들 역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해 저무는 산비탈 하늘 밖 외로운 구름 / 최치원이 당시에 여기에 머물러 / 드디어 바닷가 평범한 땅을 / 인간세상 제일의 기이한 곳으로 바꾸었네.[141]

1643년 사행에서 正使로 참여한 尹順之의 詩로 해운대의 유명세가 최치원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역설적으로 최치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해운대의 風光에 대한 찬탄의 의미도 강하게 반영된다. 해운대를 최치원과 관련짓는 것은 당시의 상투적인 作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사행에 從事官으로 참여한 申濡 역시 "孤雲(최치원)이 외로운 학처럼 여기서 유유히 가 /

千里海浪青銅鏡 萬樹山茶碧玉叢 左右繽紛羅紛黛 古今登眺幾英雄 我來却恨茲遊晩 未見繁花雪裏紅.

138) 姜渾, 『木溪逸稿』, 「木溪先生逸稿」卷1, 詩, 〈東萊驛還樓〉. 千古儒仙分物色 欲追高步柰.

139) 徐居正, 『四家集』, 「四家詩集」 卷45 第21, 詩類, 〈海雲臺行送柳斯文之東萊〉. 海雲之仙喜我來 臘月頃刻花滿開.

140) 高敬命, 『霽峯集』, 卷5 「詩」, 〈海雲臺崔致遠舊遊處南秋江有遊海雲臺記〉. 崔海雲非海上仙.

141) 尹順之, 『涪溟齋詩集』, 卷3, 「詩」, 〈萊山謾占〉. 天外孤雲傍晩陂 崔仙當日此棲遲 遂令海岸尋常地 點化人間第一奇.

아름다운 거문고 안고 천 년을 선계에서 놀았다"[142]고 읊고 있다.

이밖에 '海雲臺上・五六歸帆・養雲瀑布・龜南溫泉・烽臺點火・牛山落照・萇旨流川・春川躍漁' 등 소위 '海雲臺 八景'이 존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해운대의 경치만을 대상으로 읊은 시도 많은데, 불행히도 『海行摠載』 소재 사행록에는 그런 시가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763년 사행의 正使 趙曮이 자신의 사행록에 海雲臺를 沒雲臺와 비교한 감상을 적어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행록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서 특히 흥미롭다.

> 동래에 해운대, 몰운대 두 臺가 있는데, 몰운대는 多大津 오른쪽에 있고 해운대는 좌수영 왼쪽에 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것이 낫다느니 저것이 낫다느니 하여 자못 영남루가 촉석루보다 낫다느니, 촉석루가 영남루보다 낫다느니 하는 것과 같았다. 대개 몰운대는 앞에 벌여 있는 작은 섬들이 아늑하게 아름답고 고와서 마치 아름다운 여자가 화초밭 속에 화장하고 있는 것 같고, 해운대는 대 앞에 암석이 3면을 둘러싸서 층층 나고 굽이쳐 천명 쯤 앉을만 했으며 전면이 광활하여 마치 대마도와 맞대고 중간에 한 가지 물건도 가린 것이 없으니 마치 헌칠한 장부가 흉금을 드러내 놓고 천만 가지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143]

몰운대를 '꽃밭 속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로, 해운대를 '흉금을 드러낸 헌칠한 장부의 기상'으로 비교하고 있다. 같은 사

142) 申濡, 『海槎錄』, 「申竹堂海槎錄」, 〈釜山五絶-海雲臺〉. 孤雲獨鶴去悠悠 瑤瑟千年紫洞遊.

143) 趙曮, 『海槎日記』, 癸未年, 9/3. 萊州有海雲沒雲兩臺 沒雲在多大鎭右 海雲在左水營左 觀者互爭優劣 殆如嶺南勝矗石 矗石勝嶺南之辨矣 蓋沒雲臺則羅前小島窈窕佳麗 有若美貌女子 凝粧於花卉叢中 海雲臺則臺前怪岩 周回三面 層層曲曲可坐千人 而前面廣闊 直對對馬島 無一物中間碍滯者 有若軒豁丈夫 披露胸襟 以示萬象者也.

행에 참여한 김인겸조차 〈일동장유가〉에서 '히운딕의 올나가니 안계(眼界)도 멈도멀샤 슈쳔(水天)이 일식(一色)일다'라 하여 그 막힘없이 통창함과 바닷물과 하늘이 맞닿은 풍광을 칭탄하고 있지만, 해운대와 몰운대를 풍광을 중심으로 상호비교한 慧眼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6. 太宗臺

太宗臺는 부산 영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암석해안의 명승지[144]로 『東萊府誌』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府의 남쪽 30리에 있다. 절영도의 동쪽 바닷물이 돌아가는데 서쪽에 돌다리가 하나 있어 놀러 오는 사람들이 겨우 통할 수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라 태종이 활을 쏘아 과녁을 맞힌 곳이므로 '태종대'라 하였다고 한다. 가뭄이 든 해는 비가 오기를 기원한다.[145]

신라 29대 임금인 太宗武烈王이 활을 쏘며 놀던 곳에서 '태종대'란 지명이 유래되었고, 동래부사가 가뭄이 들었을 때 祈雨祭를 지내던 곳이란 설명도 깃들어 있다. 반면 신라 태종무열왕이 對馬島를 토벌할 때 머물렀다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설[146]과 함께, 태종무열왕이 아닌 조선의 태종이 순행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그 진위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당시 통신사행원들이 태종대에 유람을 한 흔적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통신사가 일본을 향할 때 태종대 앞바다를 거쳐 지

144) 『부산의 문화재』 (부산광역시, 1998), 139쪽.

145) 『東萊府誌』, 「古跡」, 〈太宗臺〉. 在府南三十里 絶影島之東海水周遝 西有一石橋僅通遊人 傳新羅太宗射侯之處 故名以此云 迎旱禱雨.

146) 安鼎福, 『東史綱目』, 第三, 上, 「癸卯新羅眞平王五年高句麗平原王二十五年百濟威德王三十年」. 今東萊絶影島 有太宗臺 俗傳新羅太宗 伐對馬島時 駐蹕處也.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귀환시에도 釜山僉使나 水使 등이 태종대 앞바다에 나와 전송하는[147]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사행원들의 태종대 유람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통신사행원으로서 최초로 太宗臺를 방문한 이는 1607년 사행의 부사 慶暹으로, 그는 "水使의 戰船을 타고 태종대에 가서 놀았는데 대양을 굽어보니 대마도가 바다 구름 사이에 아물거렸다"[148]고 적고 있다. 또 1643년 사행의 종사관 申濡도 다음과 같이 태종대를 읊고 있다.

> 신선의 가마 어느 해에 이곳에 오셨던고 / 지금까지 神物이 높은 臺를 보호하네 / 구름 사이에 이따금 笙簧과 鶴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니 / 아마도 枚皐가 호종했다 돌아옴인가.[149]

태종 임금이 거동하신 것을 칭탄하고 신선바위를 神物의 상징으로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笙簧과 鶴의 소리가 들리는것 같으니, 아마도 賦와 頌으로 漢武帝의 총애를 받았던 詩人 枚皐가 태종임금을 호종했다 돌아오기 때문일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태종대가 당시 사행원들에겐 神仙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7. 其他

통신사의 사행록에 반영된 부산의 모습은 단지 觀光 명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행록 속에는 당시 통신사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147) 이에 대해서는 慶暹의 『海槎錄』 7월 3일조의 기록과, 吳允謙의 『東槎上日錄』 10월 18일조의 기록을 참조.

148) 慶暹, 『海槎錄』上, 丁未年, 2/16. 乘水使戰船 往遊太宗臺 俯見大洋 對馬島明滅於海雲間.

149) 申濡, 『海槎錄』, 〈太宗臺〉. 仙駕何年此地來 至今神物護高臺 雲間往往聞笙鶴 疑是枚皐扈蹕廻.

倭館에 대한 견문도 기록되어 있다. 부산이 일본과의 외교·무역의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로 발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들라면 단연 왜관이 손꼽힌다.

왜관은 앞서 살폈듯이 1407년 釜山浦·薺浦에 왜관이 설치된 이래 단순히 사신이 머무는 '客館'이라기보다 양국 교역의 거점인 '商館'으로서의 기능도 겸하면서, 또한 일본인 거주지로서의 성격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150] 그 중 1678년 용두산 부근으로 자리를 옮긴 초량왜관은 그 규모가 동서 350칸, 남북 250칸의 약 10만평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였는데, 특히 開市大廳은 '互市'[151]라는 명목으로 조선 商人과 일본 商人의 무역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다. 渡日을 앞두고 부산에 머물고 있던 사행원들에게 있어 부산 客舍로부터 약 20리쯤 떨어져 있던 왜관의 開市는 또 하나의 볼거리였다.

> ㈎ 이 날은 바로 왜관에 시장이 열리는 날이다. 李錫予와 무리를 만들어 倭館에 들어가 피차간에 시장을 여는 것을 살펴보았다. 교활한 왜인들이 물건을 검사하여 물리치고 사지 않는 꼴이란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다.[152]
>
> ㈏ 연경 저자엔 비단과 낙타가 많다더만 / 초량엔 오늘 아침 비단 돛이 많구나 / 배 위에서 매번 오랑캐아이 춤을 보는데 / 언덕 위에 드문드문 북객의 노래소리 들리네.[153]

---

150) 김동철, 「조선후기 국방·외교·무역의 중심지 부산」,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129쪽.

151) '互市'는 朝日通商貿易을 일컫는 것으로 조선의 수입품은 동철·유황 등의 광산물과 소목·호초 등과 같은 약재, 무소뿔 등 기타 염료나 공예품이었고, 수출품은 인삼·짐승가죽·모시·명주·호두·대추·종이·부채 및 중국 물건들이었다. 이 互市의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日本商人은 동래부의 證認을 받은 자라야 했고, 朝鮮商人은 그 무역으로 인해 얻은 이익 중 1/10을 세금으로 내어야했다.

152) 金指南, 『東槎日錄』, 壬戌年, 6/8. 是日乃倭館開市之日也 與李錫予作伴入往倭館 參見彼此開市 狡倭黠退之狀 不可形言.

글(가)는 1682년 사행에 漢學譯官으로 수행한 金指南이 왜관의 開市를 직접 참관한 감상을 적은 글로, 물건의 검사는 하되 사지 않는 倭人들의 모습을 두고 '교활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왜관에서의 定期 開市는 처음에 매월 3일·13일·23일이었지만, 1610년 이후에는 3일과 8일의 5일장 형태로 매월 6번이나 서게 되었고, 그밖에 양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날짜와 관계없이 場이 서기도 했다. 김지남은 바로 그 5일장에 해당하는 6월 8일의 開市를 구경한 견문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글(나)는 조선조 최대의 委巷시인으로 손꼽히는 洪世泰가 똑같은 1682년 사행에 참여한 뒤 부산에 5월 27일 도착하여 6월 18일 아침까지 총 20일을 머물면서 지은 4題 5首의 使行詩 가운데 하나이다.

둘 모두 왜관의 시장을 구경하고 적은 것이지만 글(가)가 단순히 日人과의 교역상황을 곁에서 살핀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글(나)는 燕京시장과 草梁시장을 대비시켜 詩想을 전개한다. 곧 燕京과 草梁시장은 번화한 거리, 무역의 도시, 문화의 교류지로서의 거대한 시장이라는 공간설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燕京의 시장이 아름다운 비단이 펼쳐지고 낙타가 오가는 다소 분주함 속에서도 편안한 여유로움의 공간이라면, 초량의 아침은 비단 돛만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어 오히려 사행을 떠나는 배들의 정처 없는 지향성을 느끼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왜관 외에 언급된 곳으로는 '萬公壇'·'息波亭'·'金井山城' 등이 있다. 1811년 사행의 경우 使臣이 두 차례나 萬公壇에 올라 奏樂으로 소일하고 돌아왔고[154], 영가대 앞 바다 건너편에 있던 '息波亭'에

153) 洪世泰, 『柳下集』, 卷1 「詩」, 〈釜山歌 其二〉. 燕市綾羅萬橐駝 草梁朝日錦帆多 舟中每見蠻兒舞 岸上稀聞北客歌.

154) 柳相弼, 『東槎錄』, 「日記」, 辛未年, 3/7. 飯後兩使登萬公壇 奏樂消日而還.

서는 사행원들을 위해 음식을 베풀기도 했다[155]. 그리고 1711년 사행에는 三使臣이 開雲津 뒤의 跨海亭에 올라 景觀을 조망하고 활쏘기와 기생의 칼춤을 구경하다 연회를 베풀었으며[156], 金井山城의 東門을 돌아 中將臺에 이르러 산의 형세를 살핀 후 石築의 엉성함을 지적[157]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사행원들은 지역 명소에 대한 감상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민의 삶도 그려내었다.

> 풍뉴롤 마촌후의 싱복(生鰒)싸ᄂᆞᆫ 굿ᄉᆞᆯ보닉 / 삼십명 포잠ᄒᆞᆫ(瓢潛漢)이 일시의 옷살밋고 / 허리의 망ᄐᆡ차고 노(櫓)ᄭᅳᆺ히 뒤웅ᄆᆡ야 / 억만장(億萬丈) 풍도(風濤)듕의 것구로 ᄲᅱ여드러 / 싸흐로 머리가고 하ᄂᆞᆯ노 발이가지 / 헤음ᄒᆞ야 가ᄂᆞᆫ샹(像)이 긔고리 모양일다 / 싱복을 싸가지고 뒤웅의 걸머듸여 / 호흡을 두루고셔 ᄯᅩ 다시 드러가니 / 무섭고 불샹하야 심골(心骨)이 놀납도다 / 인인군ᄌᆞ(仁人君子) 보기되면 싱복을 먹을소냐.[158]

이는 1763년 통신사행에 참여한 김인겸이 배를 타고 해운대로 가서 거기서 베풀어진 연회에 참석하여 동래와 대구 기생들의 춤을 구경한 뒤 해녀들의 전복 따는 장면을 견문한 바를 묘사한 것이다. 물에 뛰어드는 해녀들의 모습을 개구리에 비유한 뒤 무섭고 불쌍하여 어진 군자라면 어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生鰒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통신사행과는 관계없이 일찍이 南孝溫도 해운

155) 柳相弼, 『東槎錄』, 「日記」, 辛未年, 7/4. 兩使出坐息波亭 渡海諸人饋 盤纏餘米依前例帖下.

156) 任守幹, 『東槎日記』 乾, 辛卯年, 7/4. 與正使 從事復會跨海亭 觀射 使妓輩舞釰仍張樂.

157) 任守幹, 『東槎日記』 乾, 辛卯年, 6/14. 入東門 抵中將臺少歇 觀山城形勢 則周遭闊大 幾三十餘里 石築甚疏.

158) 金仁謙, 〈日東壯遊歌〉,

대에서 어부가 전복을 캐는 광경을 언급[159]한 바 있지만 이렇게 곡진하게 그려내진 않았다. 이처럼 통신사 사행문학에는 일반 문인들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부산 서민에 대한 따스한 눈빛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통신사 사행문학에 반영된 부산의 모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조의 통신사는 임금까지 직접 나서 우수한 文才를 지닌 이들로 선발한 일종의 문화사절단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그들이 펼친 활약에 비하면 그들이 부산에서 지었거나 또는 부산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것은 不俱戴天의 일본으로 향하는 使行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조선 후기 12차례의 통신사행 중 捕虜刷還을 주임무로 했던 초기 3차까지의 사행에서 일본인과의 詩文唱和가 거의 없었던 상황과 같은 맥락이다. 조정에서 뛰어난 문장가를 뽑은 것은 일본에서의 활약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게다가 각종 통신사 사행록은 당시 출판되자마자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내 노정에서의 詩文唱和는 자칫 使命의 소홀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핀 것처럼 부산은 통신사행을 통해 타 지역 문인들로 하여금 부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그것은 바로 뛰어난 문인들로 하여금 지역명소를 소

159) 南孝溫, 『秋江集』, 「秋江先生文集」卷4, 序, 〈遊海雲臺序〉. 跨惠子之瓢 入水不濡者 漁人採鰒也.

재로 한 다양한 시문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부산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문학 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통신사 사행문학에 반영된 부산의 모습을 다루면서도 『海行摠載』 소재 부산관련 시문만을 중심으로 살핀 것이기에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이는 1차적 작업이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사행원으로 참여한 문인들의 개인 문집 속에 전하고 있는 부산을 소재로 한 작품과, 각종 選集, 그리고 각지에 산재해 있는 鄕土誌 등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질 경우 통신사 문학 속에 반영된 부산의 모습은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 작업은 뒷날을 기약하기로 한다.

■『海行摠載』소재 부산 관련 詩 목록

번호	작 자	제 목	수록 문헌
1	宋希璟	次東萊東軒韻三首	日本行錄
2	宋希璟	次梁山徐明府晉韻	日本行錄
3	宋希璟	東萊溫井別晋山牧伯閔校	日本行錄
4	宋希璟	溫井孫漢城可興出小娥歌舞	日本行錄
5	宋希璟	書示日本使僧亮倪二首	日本行錄
6	宋希璟	左道水軍都節制使權蔓請予及亮倪海上草野開餞	日本行錄
7	宋希璟	聞密陽劉明府直來釜山浦阻風雨奉寄	日本行錄
8	宋希璟	次劉密陽見寄韻	日本行錄
9	宋希璟	十三日觀察使李澄承上命來釜山浦開宴餞日本使僧及回禮使次倪韻	日本行錄
10	金訢一	初三日入東萊館	海 槎 錄
11	金訢一	謝友人白文瑞追別蓬原	海 槎 錄
12	金訢一	燈夕東樓餞席次松堂韻	海 槎 錄
13	金訢一	再用前韻呈方伯金子昻	海 槎 錄
14	金訢一	燈夕卽席次宣慰使李明甫韻示諸公	海 槎 錄
15	金訢一	次韻奉呈李明甫	海 槎 錄
16	李德馨	酒席承幸敎銘感實深錄一絶謝厚意	海 槎 錄
17	金訢一	十六日次松堂韻	海 槎 錄
18	金訢一	次五山韻	海 槎 錄
19	吳允謙	東萊妓一生副使所留副使詩有湖海風流都戲爾之句故戲贈之	東槎上日錄
20	吳允謙	在釜山逢大風雨副使書一絶以示次韻以贈	東槎上日錄
21	吳允謙	次東萊蓮堂韻	東槎上日錄
22	吳允謙	左兵使李公時英得實琴於餞席上求詩甚懇書此以副	東槎上日錄
23	金世濂	釜山次權學官韻	槎 上 錄
24	金世濂	次外弟許岱韻	槎 上 錄
25	金世濂	送郭弘垓郭弘斑還玄風	槎 上 錄
26	金世濂	次權學官韻	槎 上 錄
27	權 伐	附原韻	槎 上 錄
28	黃 戶	附從事次韻	槎 上 錄

번호	작 자	제 목	수록 문헌
29	金世濂	留別外弟用權學官韻	槎 上 錄
30	金世濂	次權學官韻呈上使	槎 上 錄
31	趙 絅	三月十七日在釜山上使登覽城堞以詩贈之	東 槎 錄
32	趙 絅	次鎭海館板上韻	東 槎 錄
33	趙 絅	望馬州	東 槎 錄
34	趙 絅	三月二十六日祭海神	東 槎 錄
35	趙 絅	三月三十日	東 槎 錄
36	趙 絅	次從事韻	東 槎 錄
37	趙 絅	次李蔚山崍贈韻	東 槎 錄
38	申 濡	次釜山館	海 槎 錄
39	申 濡	登釜山次螺山	海 槎 錄
40	申 濡	鄭都事士興來別釜山館信宿將行走筆題扇	海 槎 錄
41	申 濡	次泮溟釜山館韻	海 槎 錄
42	申 濡	奉酬晉山明府姜令公 大遂	海 槎 錄
43	申 濡	舟中次泮溟韻	海 槎 錄
44	申 濡	草梁雨中次螺山韻	海 槎 錄
45	申 濡	舟中聞鼓吹不能着睡次螺山韻	海 槎 錄
46	申 濡	移泊戡蠻浦候風	海 槎 錄
47	申 濡	釜山五絶	海 槎 錄
48	申 濡	次韻奉酬東萊鄭使君 維城	海 槎 錄
49	申 濡	病伏舟中呈泮溟	海 槎 錄
50	申 濡	舟中更鼓擬從軍五更轉	海 槎 錄
51	申 濡	多大浦雨中	海 槎 錄
52	申 譕	浮海	海 槎 錄
51	申 濡	多大浦雨中	海 槎 錄
52	申 譕	浮海	海 槎 錄
53	南龍翼	次翠屛示韻	扶 桑 錄
54	南龍翼	沂川丈寄一絶於撥便奉次以謝沂川洪公命夏號	扶 桑 錄
55	南龍翼	有懷洛中諸君子奉寄靑湖丈兼示 幼能載邇長卿久之	扶 桑 錄

번호	작 자	제 목	수록 문헌
56	南龍翼	祭海神祝	扶 桑 錄
57	南龍翼	萊州歌贈萊州韓使君 震琦 仍呈兩使	扶 桑 錄
58	南龍翼	戲次翠屛韻仍呈秋潭	扶 桑 錄
59	南龍翼	病中未赴兩使飯城之遊。卽次秋潭誇示之韻	扶 桑 錄
60	南龍翼	萊館書懷得長篇四十韻呈兩使兼示讀祝李文哉	扶 桑 錄
61	南龍翼	渡海宴口號	扶 桑 錄
62	南龍翼	夜坐次秋潭韻	扶 桑 錄
63	南龍翼	發船前一日萊伯設小酌于蜜日軒走書便面以別	扶 桑 錄
64	南龍翼	過水宗望永嘉臺志喜	扶 桑 錄
65	南龍翼	回泊釜山	扶 桑 錄
66	南龍翼	無題	扶 桑 錄
67	南龍翼	東萊客館留別李文哉書扇面	扶 桑 錄
68	申維翰	次白帝城放船	海 游 錄
69	洪致中	無題	海 游 錄
70	申維翰	無題	海 游 錄
71	趙曮외 4명	余於丁丑秋除萊伯翌年冬移道伯準瓜而歸今又以信使踰嶺而南聊吟一律以謝道路觀光之士民云爾	海槎日記
72	趙曮외 6명	久滯海濱旅館偶吟一絶求和于副价從事二令兄	海槎日記
73	李瑞彪	無題	海槎日記
74	趙 曮	李佐甫千里委訪臨別贐詩聊以和贈	海槎日記